차별·억압 넘어선 연대의 힘



이안의
Media In Buddha

㉝ 〈밤에 피는 꽃〉과 〈세작, 매혹된 자들〉



드라마 〈밤에 피는 꽃〉 포스터.

불교는 차별에 반대하는 종교다. 그렇기에 불교는 오래전부터 종교, 성 정체성, 이념 등에 의해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해 왔고,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천행을 펼쳐왔다. 특히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은 2021년 10일 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하며 여의도 국회의사당까지 30㎞를 오체투지로 나아가기도 했다.

심상치 않은 시대적 상황과 팍팍한 개인의 실존 사이에서 자신의 능력과 성 정체성 가운데 하나는 포기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남장 여자를 중심으로 하는 드라마는 〈바람의 화원〉(2008년, SBS), 〈성균관 스캔들〉(2010, KBS) 이래 사극에서 하나의 장르가 되었다. 이 두 드라마와 같이 조선시대, 그것도 정조 시대를 배경으로 한 남장 여자 이야기는 혜원 신윤복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 〈미인도〉(2008, 감독 전윤수)도 이 무렵에 개봉된 화제작이었다.

그리고 지난해 드라마 〈연인〉 이래 요즈음 사극은 병자호란 이후 시대가 사극에서 주무대가 되고 있다. 〈연인〉이 청나라에 끌려갔다가 돌아와 조선이라는 사회의 억압을 돌파하는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는 드라마였다면 최근의 〈밤에 피는 꽃〉(2024, MBC)이나 〈세작, 매혹된 자들〉(2024, TVN)은 남장 여자를 등장시켜 병자호란 이후의 조선에서 돌파해야 할 사회의 병폐들을 그려낸다.

왜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배경의 콘텐츠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걸까? 어떤 시대가 특정한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그려내기에 그럴싸한 배경이 된다는 것은 시대적 고증에 정확하게 딱 들어맞는 재현의 문제가 아니라 되짚어 풀어내는 해석의 문제다. 그 시대에 이미 '인요(人妖, 남자로 변장한 여자나 여자로 행세하는 남자를 이르는 말)'라는 용어가 있었으니 남장 여자도 있었을 것이요, '계간'이니 '비역질' 같은 말도 있었으니 분명 동성애도 그늘진 자리에서 손가락질 받고 있었을 것이다.

자본주의 콘텐츠 시장에서 상업영화나 드라마는 자본을 수십억씩 들여 만들어지는 위험 부담 상당한 상품이다. 그런 만큼 〈미인도〉나 〈바람의 화원〉이 실제의 혜원이나 단원, 정조 대의 조선을 얼마나 사실적으로 재현했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문제 삼거나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어차피 영상에서 재현되거나 참조되는 그림들은 실제 작품들 그 자체가 원본이 있는 것이니 만큼 그림의 작품성이나 해석이 큰 문젯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림을 두고 어떤 이야기를 풀어냈으며, 그 이야기를 관객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다.

하필 두 작품 다 '혜원 신윤복이 사실은 여자였더라면', 그래서 '단원 김홍도와 농밀한 성적 긴장 관계를 맺었더라면'이라는 가정에서 이야기를 꾸며내기 시작했었다. 그렇게 하는 것이 21세기 관객에게 만들어내는 소통의 채널이 되도록 하는 장치였기 때문에. 그 시대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소환하는 장애가 있고, 그 장애를 넘는 카타르시스를 관객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밤에 피는 꽃〉 등 남장 여성 사극
남장 통한 겨룸으로 가부장제 극복

아무리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남성으로 위장했을 때는 화원으로서 사회적 역할도 수행하고, 수제자로서 인간적 대우도 받고, 자식으로서 가문의 일원임을 인정도 받지만 위장을 벗고 여성성을 드러내는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은 신윤복이 살았던 18세기 조선의 실상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 사회의 현실인 것이다. 여성이 사람대접을 받는 것은 오로지 명예남성으로 처신할 때뿐이라고 새록새록 일깨우고, 자기 안의 여성성을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드러나는 순간 기다리는 것은 가혹한 처벌뿐이라는 엄혹한 현실을 되새기게 하는 것이다.

신윤복의 그림을 통해 영화 〈미인도〉가 보고 느끼고 그려낸 것, 그리고 드라마 〈밤에 피는 꽃〉이 아름다운 청춘들의 고뇌를 통해 드러내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시대가 여성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식이다. 〈미인도〉에서는 혜원(김규리 분)의 입을 빌려 '흔들리고, 사랑하고, 유혹하는 모습이 아름답노라'고 속삭이며 명예남성으로서가 아니라 여성주체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게 한다.

이렇게 그림으로 남은 신윤복의 미인도와 영화 〈미인도〉, 드라마 〈바람의 화원〉을 경유해서 드라마 〈밤에 피는 꽃〉이나 〈세작, 매혹된 자들〉의 여성 주인공들 역시 남장 여자로 등장한다. 그런데 이들은 〈성균관 스캔들〉이나 〈미인도〉처럼 명예남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여성으로서 발휘할 수 없을 때 남장을 하고 마음껏 실력을 발현한다. 이들의 남장이 시청자들에게 지지를 받는 까닭은 이 여성들이 남장을 통해 드러내려는 능력과 가능성이 자신의 성장이나 출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타심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청나라에 끌려갔다가 속환비를 마련하지 못해 억류된 여성들을 구하려는 것이 〈밤에 피는 꽃〉의 여화(이하늬)나 〈세작, 매혹된 자들〉의 희수(신세경)가 남장을 하게 된 계기다. 남성 중심 가부장제 국가가 희생양으로 삼은 여성들을 생과부인 여화나 정쟁으로 아슬아슬한 집안의 딸이 무술로든 바둑으로든 구해내려는 것이 남장의 시작이다.

이들의 무술과 바둑은 '겨루는 일'이다. 겨루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여성이 절대로 드러내지 못하도록 했던 시대가 조선시대다. 남장 여자 사극은 긴장은 이 같은 시대적 배경에 바탕한다. 남성들이 정쟁과 명분으로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상황에서 억압당하는 여성들을 능력있는 여성이 구해내기 위해서는 남성의 의복을 걸쳐야 한다는 위장된 성 정체성, 그 위장이 발각되는 순간 어떤 목적으로 어떤 성과를 이뤘느냐와 상관없이 가혹하게 처벌되리라는 위기가 상존하고 있어서다.

이들 남장 여성의 드라마는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이 현대사회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아스팔트 길 위에서 오체투지를 했던 것처럼 타인의 입장과 고통을 이해하며 연대하는 자리이타행이다.

〈영화평론가〉

나란다축제 불교고리경시대회 완전정복 ⑦

1.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고타마'는 '최상의 소'라는 뜻이다.
② 출가하기 전 이름은 '고타마 싯다르타'이다.
③ 아버지는 정반왕이며, 어머니는 마야왕비이다.
④ '석가모니'는 '석가족의 위대한 성자'라는 뜻이다.
⑤ '석가'는 성(姓)으로 '모든 것을 성취한'이라는 뜻이다.

해설 : 석가모니 부처님은 아버지 정반왕과 어머니 마양왕비에게서 태어났으며 출가 전의 이름은 고타마 싯다르타이다. 고타마는 성으로 여러 가지 뜻이 있으나 최상의 소라는 뜻도 있다. 싯다르타는 이름으로 모든 것의 성취라는 뜻이다. 석가모니는 석가족의 성자란 뜻으로 석가란 부처님의 성이 아니라 종족(민족)을 말한다.

2. 『대방편불보은경』에서는'그대들은 이제 가되 부처님같이 가야하고, 머무르되 부처님같이 머물러야 한다'고 말한다. 이때 '부처님같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한다.
② 당면한 현실의 고통보다는 사후의 행복에 관심을 둔다.
③ 편견과 독단에 빠지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한다.
④ 모든 생명이 저마다 지고지순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자신의 벗으로 받아들여 그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한다.

해설 : 부처님께서는 현생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모든 번뇌를 정복하고 고통에서 벗어나신 분으로 사후가 아니라 현생에서 이미 최상의 행복을 얻으신 분이다. 그럼으로 '부처님같이'에는 사후의 행복에 대한 관심이 없다.

3. 불교에서는 수 없이 많은 부처님이 있다고 말한다. 이 수 없이 많은 부처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불교는 다신교적 전통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부처님이 존재한다.
② 누구나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으므로 무수한 부처님이 존재한다.
③ 일체의 병든 사람을 구제하겠다고 서원을 세운 부처님은 약사여래부처님이다.
④ 중생을 극락으로 인도하여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부처님은 아미타부처님이다.
⑤ 깨달음을 이루어 진리와 함께 하면서도 고뇌하고 슬퍼하는 사람을 위해 자비의 손길을 멈추지 않는 분이시다.

해설 : 불교가 창시되던 당시에 주변에 다신교적 문화가 일반적이었으나 부처님의 설법은 기존의 종교와 전통에서 벗어난 전대미문의 가르침이기에 그 배경으로서 다신교를 얘기할 수 없다. 불교에서 부처님이 많은 이유는 다신교의 이론에 따른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에게 최고의 가치(깨달음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인본주의의 종교이기 때문이다.

4. 부처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처님은 일체의 탐욕과 집착과 어리석음을 끊은 분을 말한다.
② 누구나 깨달을 수 있기에 많은 부처님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다.
③ 부처님은 인간으로서 우주와 인생의 궁극적 진리를 깨달은 존재이다.
④ 부처님은 한없는 자비심으로 어리석은 중생을 깨우치고 구원하신 분이다.
⑤ 부처님은 일체에 대한 깨달음을 얻어서 모든 것을 아는자[一切智者]이다.

해설 : 부처님께서는 진리를 가르치셨지만 그 진리를 들어 배우고(문), 배운 바를 숙고하고(사), 숙고한 바에 따라 수행하여(수) 깨닫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몫이다. 그렇기에 깨달음은 전적으로 자신의 몫, 즉 구도의 길이지 부처님의 구원에 의한 것은 아니다.

5. '일체중생 실유불성(一切衆生 悉有佛性)'의 의미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① 모든 것은 운명에 달려있다.
② 모든 생명은 불성을 지니고 있다.
③ 인간을 긍정적으로 신뢰하고 있다.
④ 인간을 열려있는 존재로 보고 있다.
⑤ 모든 존재가 부처님과 다를 바 없는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해설 : 일체중생 실유불성은 모든 존재가 부처님과 다를 바 없는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모든 생명은 불성을 가지고 있으며 가능성으로서 인간을 긍정적으로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열려있는 존재로 보고 있다. 모든 존재에게 최고의 가치가 인정됨으로 그 존재를 속박하는 결정된 운명은 없다.

정답 : ① ② ② ③ ① ④ ④ ⑤ ① ⑤

제공 :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 감수 : 서정원 박사

최고급제품 & 착한가격 & 친절상담 & 빠른배송
동호불교물류센터
전국 최대규모 500평 매장에 불교용품의 모든것
전품목 10~30%
승복&가방 50% 할인
제품 소진시 까지
고가구·병풍 30% 할인
※ 일부 품목 제외 ※ 택배비 포함된 가격입니다.
등설치 스카이 3월 30일까지 할인 설치 합니다.
사월초파일 제품 할인판매합니다.
신제품
다양한 연잎, 등살, 등작업 2월말까지 행사중입니다.
인등 신제품 많이 준비 되었습니다. 주문제작 합니다.
수제부적 50장 20,000원씩 / (국산)전기선 LED전구 100개 이상 1,300원
2024년 신년맞이 행사
안녕하세요. 동호 불교용품 물류센터입니다.
저희는 모든 불교 용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세요
삼베 , 검정삼베 개당 2,000원 / 50개 100,000원
길베 , 소창 개당 2,000원
오색종이 개당 450원
식물성 양초 - 그을음 없는 최상급 (흰색, 노랑색 가격동일)
7일초 20개 70,000원
5일초 24개 75,000원
3일초 40개 75,000원
1일초 100개 85,000원
15일초 12개 105,000원
국산초
밀대 50개 65,000원
돈타래 40개 75,000원
원백 20개 75,000원
수입양초
밀대 50개 65,000원
돈타래 40개 75,000원
원백 20개 75,000원
흰색 식물성 양초 B급 (※반품 안됨※)
7일, 5일, 3일 50,000원
15일 70,000원
삼베 삼제풀이 100개 60,000원
일년 신수맞이 100장 120,000원
대통부 6,000원
삼베옷 6,000원
속옷 남자 여자 각각
100장 이상 가격 15만원
베네저고리 1,500원
50장 이상 가격 75,000원
파라핀 오일 1BOX(12개) 65,000원
천왕배 오색길배-최상급
개당 4,500원 / 30개 135,000원
부정풀이 1BOX(100개) 100,000원
불상 7치 500개 12.000원 / 1000개 11.000원
대량 구매 시 전화 문의
※칠보 개금 할인중.(기존 불상 가능) ※3자기준좌포함 220만원
※불상 조각 조성합니다.(소불 500불이상 한불당 – 12,000원)
※천불이상은 11,000원
부적 파라핀 입춘 대길 수제부적 인쇄부적 할인행사 대방출!!
동호불교 검색 NAVER에 동호불교를 검색하세요.
동호불교용품물류센터
■ 대표번호 : 054-762-8200
■ 찾아오시는길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공정길 55-36
■ 문의전화 : 010-9748-3366
■ 계좌번호 : ● 농협 010-2082-2100-89 (임건순)